

책에서 시작되는 영국과의 문화교류

권위와 전통의 자양분 흡수 ... 민간 차원의 출판 교류 더 활발해야

한 나라의 문화는 언어와 문자의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핀다. 영국의 문화적 지형도는 몇가지 주제어로 요약될 수 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로 상징되는 대학문화, 셰익스피어로 대표되는 문학적 전통, 지구어로 군림하고 있는 영어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영국의 출판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비옥한 터전이기도 하다.

영국의 출판시장 규모는 96년 현재 약 49억달러. 세계시장의 4위다. 영국의 시장조사전문사인 '유리모니터사'에 따르면, 미국(약 261억), 독일(약 97억), 일본(약 91억 달러) 다음이다. 27억달러인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 예전 대영제국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지만, 문화는 결코 양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입 압도적인 불균형 교류

출판시장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출판교류 현황을 개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영국 무역산업부(DTI)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영국은 우리나라에 약 1천1백만 달러의 도서를 수출했다. 2억8천5백만 달러로 1위인 미국에 비하면 무려 25배나 차이가 난다. 일본은 7천4백만 달러로 8위에 올라 있다. 영국의 출판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 영국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97년 말 현재 3천8백만 달러를 수입한 미국에 이어 2위다. 주로 영어 회화, 대학교재가 중심이다. 이에 비해 수출 규모는 고작 약 1백25만 달러.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입증하는 자료다.

저작권 계약에서도 단연 수입이 압도적이다. 저작권 수입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로 비소설류가 중심이다. 옥스퍼드대 출판부, 케임브리지대 출판부 등 대학출판부의 인문도서와 루트리지, 블랙웰, BBC 출판부, 맥밀런 U.K., 랜덤 U.K. 등의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세계적인 아동도서 출판사인 D.K.는 본사에 한국어 담당자가 상주하면서 국내 출판사와 직접 저작권을 관할한다.



지난달 열린 런던국제도서전.

문예물은 미국·프랑스·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임프리마코리아에이 전사의 이구용 과장은 "국내 출판사로서는 아직 상업성과 대중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영국의 문예물 계약에 소극적인 듯하다"고 전한다. 노만 더글라스 등 현대 일급 작가들의 작품은 전혀 소개되고 않고 있다. 현재 작가 도리스 레싱,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 등이 국내 독자들에게 널리 소개됐다.

지역적인 소통 위한 제도장치 마련돼야

영국 출판사의 국내진출 현황은 아직은 미미한 상태.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법인을 설립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 이후 영어회화 원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기간행물과 컴퓨터 도서의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문학작품의 영국 번역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문학번역금고의 《한국문학번역서지 목록》에 따르면, 1892년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영역서는 총 247권(정간물 제외)으로 이 가운데 영국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은 21권. 서정경 외 지음 《한국한시선집》(Anvil Press Poetry Ltd, 1986), 전봉건의 지음 《한국현대시선집》(East-West Publications, 1986), 서정주의 《떠돌이의 시》(Dedallus Press, 1994) 등의 시와, 황순원의 《탈》(Readers International, 1989), 최인훈의 《광장》(Spindklewood, 1985) 등의 소설작품이다.

영국과의 출판인 교류도 아직은 소극적인 차원에 그친다. 지난 95년과 96년도 서울국제도서전에 영국출판협회가 참가했을 뿐이다. 출협은 국제출판협회(IPA) 등 국제조직을 통해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

뿌리와 전통이 다른 두 나라의 문화는 서로 만나 소통함으로써 더욱 넓고 깊어진다. 권위와 전통이 살아 있는 영국과의 출판교류는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세워준다는 의미에서 문화교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박천홍 기자

책 속 주인공과 즐거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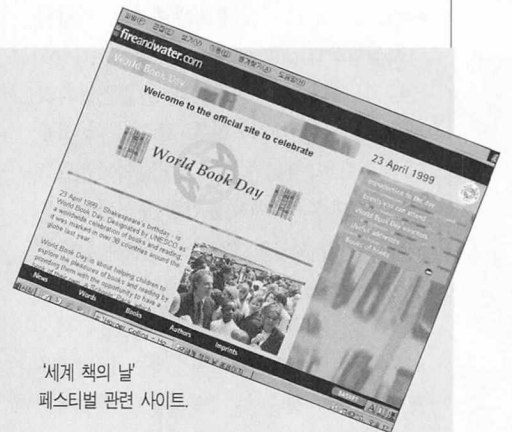
'세계 책의 날' 맞아 영국서 다양한 행사

올해 영국에서 다양한 출판·문학 관련행사가 펼쳐지는데, 가장 최근에 열리는 행사로는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생일을 기념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관련 페스티벌이 있다. 책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 1천여 곳이 넘는 각 서점·도서관·학교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현대문학에 나타난 스포츠정신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축구 소설의 밤', 가장 좋아하는 책 주인공처럼 차려입은 아이들을 초대해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제일 좋아하는 주인공', 작가가 병원에 입원중인 아이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작가의 방문',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서 개최하는 '문학퀴즈' 등 책을 주제로 한 특이한 행사가 많아 책과 독자와의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밖에도 연중 내내 1백개가 넘는 다양한 문학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레엄 그

린 등 한 작가의 작품세계만을 다루거나 코난 도일의 옛집이 있는 크로브루에서 개최되는 '셜록 홈즈 페스티벌'처럼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페스티벌도 있고 '더 워드 문학페스티벌'이나 '헤이 페스티벌'처럼 작가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기도 한다. 올해 개최되는 페스티벌 중 규모가 큰 것으로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켄 폴리트·P.D. 제임스·루스 랜들 등 12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문학토론과 각종 행사를 벌이는 '브라이트 페스티벌',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반 모리스 등의 팝가수와 해럴드 핀터·폴 오스터 등이 참여하는 '헤이 페스티벌',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돼 다양한 스코틀랜드 출판물을 소개하는 제 10회 '에딘버러 북 페스티벌',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찰튼 햄 문학 페스티벌' 등이 있다.

한편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45개국



'세계 책의 날' 페스티벌 관련 사이트.

1천4백여 출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런던 올림픽 피아에 자리잡은 그랜드홀과 내셔널홀에서 런던국제도서전이 개최됐다. 규모면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두번째이고 봄에 열리는 가장 방대한 이번 도서전에는 이안 맥키완·도리스 레싱·조셉 헬러·폴 오스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19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 런던문학페스티벌 '더 워드(The Word)', 29일부터 31일까지 열려 도서관 관련 기기를 전시한 리브테크(Libtech) 국제박람회 등과 동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김연수>